

앤소니 드 멜로의 종교사상에 관한 연구*

최응운**

초록 본 논문은 인도 예수회 소속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영성 지도자, 그리고 심리치료사이기도 했던 앤소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 1931~1987) 신부의 종교사상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종교사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주된 특징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예수회 전통의 계승, 제도적 종교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종교적 체험 강조, 부정신학 전통의 수용, 인간의 영성과 심리적 영역 간 상호연관성 강조가 그것이다.

첫째, 드 멜로는 이나시오 사상의 핵심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를 토대로 일상에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종교 전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이웃 종교의 개념이나 사상을 융합하였다.

둘째, 드 멜로는 제도적 종교의 엄격함과 교조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조직화된 종교의 구조 안에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신에게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음으로써 내면의 변화와 종교적 체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셋째, 드 멜로는 부정신학 전통의 주요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인간적 지식으로 하느님을 이해하려는 신앙적 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인간적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변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드 멜로는 심리적 문제가 개인이 영적 통찰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신수련 과정에 심리학적 요법을 도입한 '사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4809).

**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교수

나' 수련을 장안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심리적 문제와 영적 성장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며 심리적 장벽이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앤소니 드 멜로, 영성신학, 예수회, 부정신학, 종교심리학

1. 서론

본 논문은 인도 예수회 소속의 저명한 가톨릭 사제이자 영성 지도자, 그리고 심리치료사이기도 했던 앤소니 드 멜로(Anthony de Mello, 1931~1987) 신부의 종교사상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이하 드 멜로)에 관한 연구는 충분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도 시도된 바가 없다. 그는 특히 여러 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교학적으로 유의미한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현재 드 멜로의 여러 저서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포함하여 약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 이미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명성과 영향력을 가졌던 점을 고려해볼 때, 국내 학계에서 그에 대한 학문적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의 종교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학문적 가치를 조명하고, 그에 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참고로 드 멜로가 그랬던 것처럼 동양의 종교 전통이 지닌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적이었던, 가톨릭교회의 봉쇄수도회 가운데 하나인 트라피스트회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 1915~1968)의 경우, 그에 관한 논문이 1987년부터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한 이래로 학술지 논문 20여 편, 학위논문 40여 편에 달하는 연구 결과물이 산출되었다.

이것은 머튼의 출생이 드 멜로보다 16년을 앞서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드 멜로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전혀 없으며, 해외에서조차 소수에 불과하다. 우선 해외의 경우, 그의 사후 공표되었던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로 인해 촉발된 가톨릭교회 내부의 논쟁에 관한 잡지나 신문의 기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몇 편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서 한 권이 발간된 바 있다. 연구논문들을 소개하자면, 그의 저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논문,¹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그의 사상을 평가함에 있어 가톨릭교회 전통 속에 있는 부정신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그의 신관과 신약 신학적 해석의 지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문² 등이 있다. 연구서의 경우 그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이와 함께 영성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³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그에 관한 어떤 연구도 발표된 것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그의 종교사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종교지형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는 민간신앙과 불교, 그리고 유교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이래로 오늘날에는 해외노동자의 국내 취업, 국제결혼, 국내 유학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이슬람과 힌두교 신자의 숫자가 더해지며 종교적 다원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

-
- 1 T.K. Thomas (1999), "The Prayer of the Frog Called into Question: Censuring the Writing of Fr Anthony de Mello, S. J.," *The Ecumenical Review* 51(2): 172-183.
 - 2 Martin Fárek (2022), "What Would 'Indianness' of New Testament Theology Mean?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on Anthony de Mello, 'Via Negativa' and beyond the Accepted Routes in Catholic Theology," *Religions* 13(10): 904. <https://doi.org/10.3390/rel13100904>
 - 3 Anand Nayak (2007), *Anthony de Mello: His Life and His Spirituality*, Dublin: The Columba Press.

다. 다원적 종교 상황에서 어느 한 종교의 우월성만을 강조하고 타 종교를 배척하는 태도는 종교 간 갈등을 초래하며, 결국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이처럼 급속한 종교지형의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드 멜로의 종교사상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필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톨릭 사제였음에도 그는 자신이 속한 종교의 우위를 강조하지 않았으며, 자신만의 방법론을 토대로 여러 종교를 포용하려고 했다. 비록 그의 시도가 가장 완전한 형태의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종교지형의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러 종교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예수회 전통의 계승

앤소니 드 멜로의 종교 사상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본인이 속했던 예수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부분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수회 창립자 이냐시오 데 로올라(Ignacio de Loyola, 1491~1556)의 대표적 사상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가 드 멜로 사상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예수회 사제들이 그랬듯이 드 멜로 역시 현지의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가 시도했던 통합은 피상적인 혼합이 아니라 각 전통의 고유한 측면을 존중하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통합이다.

2.1.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그들은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주 하느님을 찾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가능한 한 그들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어 그들의 창조자에게 두고,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그를 사랑하도록 자주 권고받아야 합니다.⁴

위의 인용문은 이냐시오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가 잘 나타난 이냐시오의 글이다. 이 사상은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종교적 영역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느님을 직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드 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모든 사물이나 인간의 모든 행동 그리고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으라는 이냐시오의 가르침은 드 멜로에게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

당신은 하느님을 언뜻 뵈기라도 원하는가요? 모든 피조물을 몰두해서 바라보세요.⁵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모든 피조물을 관조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를 강조하는 이냐시오의 사상과 직접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드 멜로의 글에서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강생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느님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 하느님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면 손을 뻗어 누군가를 붙잡으십시오. 또는 당신이 앉아 있는 의

4 Ignacio de Loyola (1996), *The Constitutions of the Society of Jesus*, Saint Louis: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part III, n. 288.

5 Anthony de Mello (1982), *The Song of the Bird*, New York: Image Books, p. 23.

자나 읽고 있는 책을 만져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자신을 고요하게 하고서, 몸의 감각들을 의식하면서 당신 안에 작용하는 그분의 전능하신 힘과 그분께서 당신과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느껴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⁶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 멜로는 삶에 전심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 역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라는 이냐시오의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드 멜로의 이러한 태도는 영적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산만함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 멜로와 이냐시오 모두 세상에 깊이 잠긴 영성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가치에 굴복하거나 물질적 추구로 인해 자아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속에서 신성한 것을 찾고,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신성한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2.2. 그리스도교와 동양의 종교 전통 간 융합

드 멜로 사상이 갖는 또 다른 특징으로, 그리스도교와 동양의 종교 전통을 융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힌두교와 불교를 비롯하여 유교나 도교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들 종교에서 비롯된 개념이나 사상 등을 그리스도교의 그것과 융합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태도 역시 예수회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냐시오의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사상에 근거할 때 다른 종교 전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Anthony de Mello (1978), *Sadhana - A way to God*, New York: Image Books, pp. 46-47.

인도 힌두인들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묘사하는 훌륭한 표상을 개발했다. 하느님은 삼라만상을 ‘춤춘다.’ 그는 춤꾼, 만물은 그의 춤. 춤은 춤꾼과 다르지만, 그러나 춤이 춤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 말없이 춤을 관상하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 별을, 꽃을, 낙엽을, 새를, 돌맹이를. 춤의 어느 한 조각이든 좋다. 보라. 들으라. 말으라. 만지라. 맛보라. 그러면, 바라건대 머잖아 그를 보게 되리라 - 춤꾼 그를!⁷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다른 종교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슴지 않고 수용한다. 특히 그의 고국인 인도에서 태동한 힌두교나 불교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유교나 도교 등 다양한 동양의 종교 전통에 대해 열린 자세를 견지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의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을 융합하는 시도는 그의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영적 비전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회의 역사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1540년 예수회가 창립된 이래로 수도회로서의 초기 기틀을 다지며 과감한 선교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적응주의 방식(the Jesuit method of accommodation)을 채택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선교에 대한 예수회의 접근법은 해당 선교지 고유의 지역 문화, 관습, 그리고 전통을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실천을 토대로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과정인 토착화(inculturation)를 포함한다. 이것은 유럽의 관습을 강요하는 대신, 선교지 사람들의 전통, 언어, 그리고 사회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예수회의 선교방식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과 논란을 불러왔는데, 대표적 사례로 중국 명대(明代)에 발생했던 ‘중국 전례 논쟁’(the Chinese

7 Anthony de Mello (1982), p. 14.

Rites Controversy)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6세기 후반에 중국 명나라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와 그의 동료 예수회원들이 그리스도교를 중국 문화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중국 전례 논쟁’은 가톨릭교회와 명나라 왕실 간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사항은 아니기에 생략하겠으나, ‘중국 전례 논쟁’이 바티칸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켜 중국 내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선교사(宣敎史)에서 그리스도교 전파 과정에서의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과 수용의 한계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와 동양의 영적 전통을 융합하려 했던 드 멜로의 시도 역시 적지 않은 반발을 감내해야 했다. 비록 그의 생전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의 사후 11년이 지난 시점인 1998년 6월 24일에 교황청 신앙교리성(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의 ‘예수회 앤소니 드 멜로 신부의 저술에 관한 공지(Notification concerning the Writings of Fr. Anthony de Mello, SJ)’가 발표되었다.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라칭거(Joseph Alois Ratzinger, 1927~2022) 추기경(전 교황 베네딕토 16세) 명의의 공지가 명시하는 바는 드 멜로의 저서를 통해 드러난 그의 그리스도교 신앙관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⁸

생전에 드 멜로가 가졌던 명성과 그의 사후에도 여러 저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그의 저술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는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

8 Joseph Alois Ratzinger and Tarcisio Bertone (1999), Notification concerning the Writings of Fr. Anthony de Mello, SJ.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pp. 94-95.

라 외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북미 주요 가톨릭 언론들은 서둘러 그 공지에 관한 기사를 전했다는 뿐만 아니라, 일부 매체에 는 그 공지를 비판하는 여러 칼럼이 게재되기도 하였다.⁹

3. 제도적 종교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종교적 체험 강조

비록 드 멜로가 본인이 소속된 예수회 전통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수용하며 자신의 사상적 기초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는 제도적 종교의 엄격함과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빈번하게 표출하였다. 이것은 종교 전통에 내재한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되 종교가 제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진정한 영성은 조직화된 종교의 구조 안에 제한될 수 없으며 개인은 신에게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종교적 신조는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다. 그 표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드 멜로는 제도적 종교를 의미하는 ‘표지’가 신앙생활

9 David Toolan (1998), "Dr. Seuss Condemned: Grinches go after de Mello," *Commonwealth*, Oct. 23, pp. 9-10; John L. Allen Jr. (1998), "De Mello censure reflects Vatican misgiving about Eastern thinking,"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 4, p. 13; Jeannette Batz (1998), "An absurd hope survives the censures of Teilhard, de Mello,"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 23, p. 19; NCR staff (1998), "De Mello new Vatican target," *National Catholic Reporter*, Aug. 28, p. 34.

10 Anthony de Mello (1982), p. 39.

의 지침이 될 수는 있지만, 각 개인은 제도적 경계를 뛰어넘어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그는 제도적 종교가 영적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자각하게 되면 하느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영적으로 참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영성과 자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듯이, 소위 ‘자기 관찰’을 행하고자 자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삶은 기계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이지 않으며, 프로그래밍되고 조건화된 삶입니다. 차라리 돌덩이나 나무토막이 나올 수 있습니다.¹¹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제도적 종교의 틀 속에 머물러있지 말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자각은 매 순간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각이다. 그는 자각이 없는 삶이야말로 인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으며, 종교적으로도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즉 그는 제도적 종교가 때때로 사람들을 자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하며, 종교가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11 Anthony de Mello (1990), *Awareness*, New York: Image Books, pp. 65-67.

왜 내일 일을 근심합니까? 사후에 삶이 있을까? 사후에 내가 계속 살까? 왜 내일을 염려해요?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 현재의 순간을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깨달을 때 인지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현재에 살고 있음을, 현재를 삶으로써 순간마다 체험하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¹²

가톨릭교회 성직자인 드 멜로가 종교 그 자체보다 오히려 개개인의 자각에 대해 이토록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자각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자각할 때 인식하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고 말한다. 인간이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드 멜로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드 멜로는 다양한 시각에서 자각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데, 앞서 인용문에서 확인하였듯이 자각이 곧 영성이며, 자각하게 되면 곧 하느님을 갖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자각과 같은 일종의 종교적 체험의 추구를 강조한다.

이처럼 드 멜로는 인간이 종교적 교리, 의례, 제도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그 대신 자각과 같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궤를 같이한다.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처럼, 드 멜로는 종교의 외적 조직을 잠재적으로 유용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영적인 노정을 이끄는 제한된 도구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인간으로 하여금 조직화된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 신과의 개별적 관계를 탐구하도록 도전하게 한다. 이러한 드 멜로의 관점은 여러 그리스도교 신비가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던 부정신학

12 Anthony de Mello (1990), p. 111.

전통의 수용에서 기인한다.

4. 부정신학 전통 수용

많은 신비가들은 우리가 대체로 하느님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정신과 마음 외에도 우리는 모두 신비적 정신과 신비적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신비적 정신과 신비적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각과 개념과 이미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직접 알게 해주고 그분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¹³

위의 인용문은 드 멜로가 중세 가톨릭교회 전통에 속한 신비가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중세 신비가들에 관한 언급은 그의 저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신비가들은 대체로 부정신학 전통에 속한 영성가들로,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테레사 성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 서문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에 관해 우리는 그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분이 아닌지 말할 수 있다.” (...)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대화는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어느 선사의 말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13 Anthony de Mello (1978), p. 29.

릭 교회에서 시성된, 여러 세기 동안 신학의 대가였던 사람입니다.¹⁴

위의 글에서 드 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정신학적 방법론인데, 이것이 드 멜로 사상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한 드 멜로의 견해에 대해 한 가지 거론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저서에서 부정신학적 방법론을 표명하였다고 해서 그를 부정신학자로 단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부정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드 멜로와 아퀴나스의 관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정신학적 방법론이 아퀴나스의 저서 모든 곳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러한 지적에 대한 근거이다.

신성한 지식에 속한 것들을 고찰한 후, 이제 우리는 신성한 이름들을 고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따라 이름 지어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 아래에 연구해야 할 열두 가지 사항이 있다.¹⁵

실제로 아퀴나스는 동일한 『신학대전』 내에서도 I부 3문부터 11문까지의 서술을 통해 하느님의 완전성, 무한성 및 영원성 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부정신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이 포함된 13문을 통해 “신의 이름들”에 관해 거론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그의 유비론을 도입함으로써 긍정신학으로 향하는 가교를 만든다. 따라서 아퀴나스가 제시한 부정신학적 방법론은 그것 자체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신학과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4 Anthony de Mello (1990), pp. 100-101.

15 Thomas Aquinas (1948),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I, q. 13.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에서 부정신학적 방법론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을 관통하는 신학적 기초가 부정신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에 관한 드 멜로의 관점을 해석하자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퀴나스의 부정신학자 여부가 아니라, 그가 부정신학적 방법론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며, 이 점이 드 멜로에게는 사상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고찰하는 것을 학문적 접근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부정신학은 가톨릭교회 역사 초기부터 많은 신학자와 사제들을 매료시켰다. 드 멜로와 아퀴나스가 모든 측면에서 신학적 유사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신학적 방법론을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상호 간의 사상적 공명을 형성한다.

사실상 당신이 하느님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하느님에 대해 “안다” 하므로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못 보게 하는 마지막 장벽은 당신의 하느님 개념입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놓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련하여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알았다”라고 말했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한 이야기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최고의 앎은 하느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¹⁶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부정신학 전통의 중심논리를 충실히 따른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와 개념이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데,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 긍정적인 진술을 하는 대신 하느님의 신비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16 Anthony de Mello (1990), p. 102.

나에게 있어 관상이란, 말과 이미지와 개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거나 이 세 가지 모두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감각의 어두운 밤』(*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그의 책에서, 감탄할 만한 『무지의 구름』(*The Cloud of Unknowing*)의 저자가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도입니다.¹⁷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 관해 설명하는 위의 글에서 드 멜로가 거론하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성 요한과 『무지의 구름』을 집필한 익명의 저자인데, 이들 모두 부정신학 전통에 속하는 영성가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십자가의 성 요한은 중세 부정신학 전통을 대표하는 영성가로서 드 멜로와는 여러 측면에서 사상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나는 힌두교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제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지겠지만(주목해주세요. 오늘 아침, 내가 얼마나 신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숭배보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훨씬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¹⁸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은밀하게 영혼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완성으로 인도하시지만,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 주부적(注賦的) 관상이 어떤 방식인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느님 사랑의 지혜인 만큼,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정화하고 비추심으로써, 하느님과 사랑의 합일을 이루도록 영혼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¹⁹

17 Anthony de Mello (1978), p. 29.

18 Anthony de Mello (1990), p. 65.

19 Saint John of the Cross ([1953] 2003), *The Dark Night of the Soul*, trans. E. Allison

위의 두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드 멜로와 십자가의 요한 각각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인물 모두 교리적 지식보다 신성에 대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하느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인의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에서 벗어나 사랑의 합일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모든 것에서 즐거워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즐거움을 얻지 않고자 하시오. 모든 것을 소유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자 하시오. 모든 것이 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바라시오. 모든 것을 앎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자 하시오.²⁰

십자가의 요한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갈멜산의 오르막』(*Ascent of Mount Carmel*)에 나오는 위의 구절은 그의 영성 사상의 기초가 되는 역설적 사고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무’(無)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내재해 있는데, 이는 축적이 아니라 비움과 부정을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부정신학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을 향한 길은 모든 욕망, 지식, 자기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를 찾기 위해 자기를 잃음에 대한, 복음서의 저 경이로운 문장으로 되돌아갑시다. 누구든지 그런 문장을 대부분의 종교적인 문헌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적이고 영적이며 신비적인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잃을까요? 당신은 무언가를 잃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맞습

Peer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p. 47.

20 Saint John of the Cross ([1945] 2016), *Ascent of Mount Carmel*, trans. E. Allison Peers, Eastford: Martino Fine Books, pp. 62-63.

니다. 당신이 시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죠. (...)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죽음이지 자살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 얘기입니다.²¹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드 멜로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부정의 철학을 자주 설파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요한의 관점과도 유사한 것이다. 이처럼 드 멜로와 십자가의 요한, 두 인물 모두 하느님과의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지적 개념을 제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속적 집착과 욕망을 벗어나 자기부정의 태도를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들이 드 멜로가 부정신학 전통의 사상적 기초를 수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증거이다.

5. 영성과 심리적 영역 간 상호연관성 강조

드 멜로는 인간의 영성과 심리적 영역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생전에 자신이 속한 예수회의 ‘영신수련’ 과정을 지도하는 영성 지도자로도 명성을 떨쳤는데, 이때 전통적 형태의 ‘영신수련’ 과정을 자신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시켰다. 이것이 소위, ‘사다나’(Sadhana)라는 명칭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영신수련 과정인데, 이것은 게슈탈트 치료법이나 인간 중심 치료법과 같은 심리치료요법과 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을 영신수련 과정에 도입한 것이다.

사다나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흔히 “수행”(修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어원적으로 “목표를 향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힌두교와 불교에서 구도의 과정 중 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

21 Anthony de Mello (1990), pp. 103-104.

올이는 모든 노력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 드 멜로가 자신이 고안한 새로운 영신수련 과정에 이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이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을 포괄한 인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²

데노빌리의 우리를 방문한 그는 본인의 선교 생활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영성 생활에 적용한 심리학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두 영적 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했다. 그와의 만남은 8일간의 연례 수련회와 함께 시작했다. (...) 또한, 다수의 응용심리학도 존재했다. 그는 영적 생활의 문제점에 교류분석이론과 게슈탈트 치료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 최초의 사dana 모임이 거기에서 태동하였다.²³

위의 인용문은 드 멜로의 제자이자 예수회 회원이기도 했던 아난드 나약(Anand Nayak)이 드 멜로의 생애와 영성에 관해 기술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듯이 심리학의 이론들을 영성 지도 영역에 적용했던 드 멜로의 새로운 시도는 당시 인도 예수회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그것이 결국 사dana 과정의 태동으로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8일간의 단기 수련으로 시작되었던 과정이 점차 장기화되었으며, 그가 지도하는 영신수련 과정의 인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며 인도를 넘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갔다.²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실제로 잘못하거나, 또는 그랬으리라고 상상되는 것을 용서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신체적, 정서적, 영성적으로 해를 끼치는 독이 되며, 종종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

22 Anand Nayak (2007), p. 34.

23 Anand Nayak (2007), p. 24.

24 Anand Nayak (2007), p. 26.

다.²⁵

윗글에서 드 멜로는 심리적 문제와 영적 성장이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닌,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한다. 심리적 장벽, 예를 들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부정적인 자기 신념, 또는 정서적 상처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영적 통찰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가령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영적 경험에 마음을 열고 내적 평화와 초월감을 느끼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심리적 문제의 해결이 영적 경험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사dana 수련과정에서 드 멜로가 선호한 심리학적 요법은 집단치료였다. 집단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담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공유된 경험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성은 사람들이 그들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게 해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상호 이해는 내담자의 영적·심리적 도전에서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dana 수련의 출발 초기에는 참가자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다수의 사람 앞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드 멜로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다. 그것은 바로 역할극(role-playing)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고민을 안고 있는 내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집단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내담자들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게 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집단치료에 점

25 Anthony de Mello (1978), p. 75.

차 익숙해져 갔다.²⁶

영신수련 과정에 심리학적 요법을 도입한 드 멜로의 새로운 시도는 자신의 대표작, *Sadhana - A Way to God* 출간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원래 드 멜로는 이 책을 출간할 의도가 없었다. 그 이유는 비록 드 멜로가 사다나 과정을 위한 원고를 준비하기는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고만으로는 답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고, 그에 따라 드 멜로의 가르침 또한 항상 새롭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 권의 책으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답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 독자들을 위해 출간이 꼭 필요하다는 절친한 한 수녀의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으로, 결국 이 책은 한 권의 저서로 세상에 출간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영성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²⁷

사다나 수련의 성공에는 영신수련 과정에 심리학적 요법을 도입했다는 점만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불교와 같은 이웃 종교의 수행법을 도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앞서 서술한 바 있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앤소니 드 멜로의 종교사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이 주된 특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수회 전통의 계승, 제도적 종교의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개인의 종교적 체험 강조, 부정신학 전통의 수용, 인간의 영성과 심리적 영역 간 상호연관성 강조가 그것이다.

²⁶ Anand Nayak (2007), p. 41.

²⁷ Anand Nayak (2007), pp. 36-37.

첫째, 드 멜로는 예수회의 창립자 이냐시오 사상의 핵심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를 토대로 일상에서 신성한 것을 추구하며 매 순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종교 전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다른 종교 전통에서 비롯된 가치를 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그의 사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공지를 통해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신앙교리성의 공지를 비판하는 기사나 견해 또한 언론에 다수 게재되었다.

둘째, 드 멜로가 본인이 소속된 예수회 전통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자신의 사상적 기초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는 제도적 종교의 엄격함과 교조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종교 전통에 내재한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되 종교가 제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에 과감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조직화된 종교의 구조 안에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신에게 가는 자신만의 길을 찾음으로써 내면의 변화와 종교적 체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셋째, 드 멜로는 부정신학 전통의 주요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인간이 만든 언어와 개념이 하느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정신학 전통에서는 하느님과의 연합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욕망과 지적 개념을 제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세속적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초연해야 함을 강조한다. 드 멜로는 자신의 저서에서 부정신학 전통의 영성가들의 견해를 빈번히 인용하며 개인의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과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역설하였다.

넷째, 드 멜로는 인간의 영성과 심리적 영역 간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영신수련 과정에 심리학적 요법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영신수련 과정인 ‘사다나’ 수련을 창안한 사실만으로도 그가 인간의 영성과 심리적 요인의 연관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심리적

문제와 영적 성장이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닌, 상호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심리적 장벽, 가령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부정적인 자기신념, 또는 정서적 상처가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영적 통찰력을 온전히 경험하고 통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이 속한 종교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웃 종교 전통의 가치 또한 존중하였으며, 심리학의 통찰을 통합하고, 내면의 변화와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기를 강조하였던 드 멜로의 가르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드 멜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한 국내 학계에 본 연구가 작은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llen Jr., John L. (1998), "De Mello censure reflects Vatican misgiving about Eastern thinking,"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 4, p. 13.
- Aquinas, Thomas (1948), *Summa Theologica*,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 Batz, Jeannette (1998), "An absurd hope survives the censures of Teilhard, de Mello,"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 23, p. 19.
- De Mello, Anthony (1978), *Sadhana - A way to God*, New York: Image Books.
- De Mello, Anthony (1982), *Song of the Bird*, New York: Image Books.
- De Mello, Anthony (1990), *Awareness*, New York: Image Books.
- Fárek, Martin (2022), "What Would 'Indianness' of New Testament Theology Mean?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on Anthony De Mello, 'Via Negativa' and beyond the Accepted Routes in Catholic Theology," *Religions* 13(10): 904. <https://doi.org/10.3390/rel13100904>
- Ignacio de Loyola (1996), *The Constitutions of the Society of Jesus*, Saint Louis: The

- Institute of Jesuit Sources.
- Nayak, Anand (2007), *Anthony de Mello: His Life and His Spirituality*, Dublin: The Columba Press.
- NCR staff (1998), "De Mello new Vatican target," *National Catholic Reporter*, Aug. 28, p. 34.
- Ratzinger, Joseph and Tarcisio Bertone (1999), Notification concerning the Writings of Fr. Anthony de Mello, SJ,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 Saint John of the Cross ([1953] 2003), *Dark Night of the Soul*, trans. E. Allison Peer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Saint John of the Cross ([1945] 2016), *Ascent of Mount Carmel*, trans. E. Allison Peers, Eastford: Martino Fine Books.
- Thomas, T. K. (1999), "The Prayer of the Frog Called into Question: Censuring the Writing of Fr Anthony de Mello, S. J.," *The Ecumenical Review* 51(2): 172-183.
- Toolan, David (1998), "DR. Seuss Condemned: Grinches go after de Mello," *Commonwealth*, Oct. 23, pp. 9-10.

원고 접수일: 2025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19일

ABSTRACT

A Study in the Religious Thought of Anthony de Mello

Choe, Yong 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igious ideas of Father Anthony de Mello (1931-1987), a renowned Catholic priest, spiritual leader, and psychotherapist belonging to the Indian Jesuits. His religious ideas can be analyzed 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ollowing four factors: the succession of Jesuit tradition, criticism of the dogmatism of institutional religion and emphasis on individual religious experiences, acceptance of the Apophatic theological tradition, and emphasis on interrelationships between human spirituality and psychological domain.

First, de Mell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nding opportunities for spiritual growth in everyday life, drawing on the Ignatian principle of *finding God in all things*. He expanded this idea by integrating the concepts and insights of Christianity with those of neighboring religions, suggesting that one can discover traces of God within other religious traditions.

Second, de Mello strongly criticized the rigidity and dogmatism of institutional religion, asserting that true spirituality cannot be confined within the structures of organized religion. Instead, he urged individuals to focus on inner transformation and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their search for God.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Sogang University

Third, by embracing the core ideas of the negative theological tradition, de Mello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a religious attitude that attempts to understand God through human knowledge. He also emphasized that spiritual growth requires a transformation of the soul, leading to union with God by breaking away from attachment to worldly desires.

Fourth, de Mello emphasized that psychological problems are obstacles to the individual's full experience and integration of spiritual insight. He also developed the *Sadhana* practice, which introduced psychological therapy into the *Spiritual Exercises*, creating a significant impact. He consistently stressed that psychological problems and spiritual growth are inseparable, pointing out that psychological barriers can hinder true spiritual growth.

Keywords Anthony de Mello, Spiritual Theology, Society of Jesus, Apophatic Theology (Negative Theology), Psychology of Religion

